


부산시문예진흥기금지원공연  
사랑티켓참가작

폭소연발!! 좌충우돌 도둑의 이야기!!

# 도둑적 도둑

2006. 9. 9(토) ~ 10. 1(일) SH공간소극장 [www.shgonggan.com](http://www.shgonggan.com)

주최 : 극단 사계    주관 :  (주)코엔


후원 :  부산아쿠아리움, **MEGA MART** 메가마트, 부산해상관광개발,  
(복)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다우사진학원, JB클럽, 바다무대, 뮤클

Photo by 박진석, 유민정



# 공연개요

공연일시 : 2006년 9월 9일 ~ 10월 1일 (월요일 공연 쉼)  
 평일 7시 30분 / 토, 휴일 6시  
 영호남 연극제 참가(진주) 2006년 9월 6일

공연 장소 : 공간 소극장 (남천역 3번 출구 3분 거리)

주최 : 극단 사계    주관 : (주)코엔  
 T. 051-611-8518 / F.051-621-8518

극단 : 사계 [www.shgonggan.com](http://www.shgonggan.com)  
<http://cafe.daum.net/say012>

작 : 다리오 포 / 연출 : 허영길 / 기획 : 전상배  
 배우 : 조홍일, 호민, 구민주, 김만중, 양진억, 황자미, 김연주

후원 : (사)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다우사진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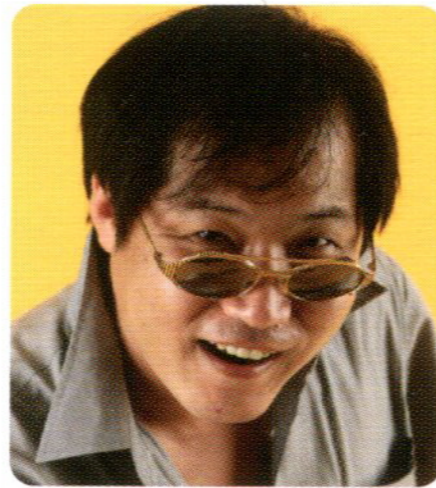
조홍일 (시의원 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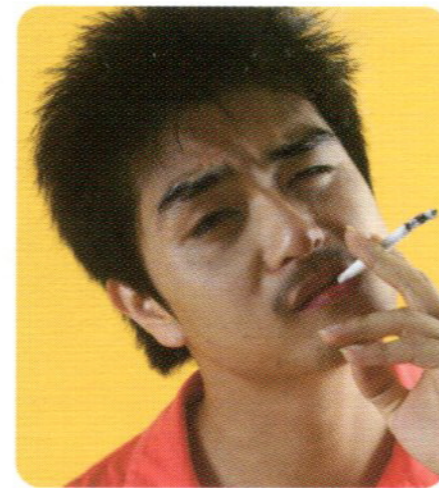
호 민 (안토니오 役)



구민주 (안나 役)



김만중 (두번째도둑 役)



양진억 (토르나티 役)



황자미 (줄리아 役)

# CAST

# STAF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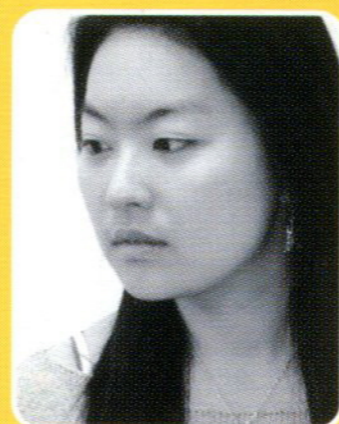
연출 허영길



기획 전상배



기획 유선주



조명 김다송



음향 김선미



김연주 (마리아 役)



# 연출의도

밖으로 보이는 세상과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세상 사이에서 우리는 무언가 시원한 결정을 보고 싶어 할 때가 있다. 내면의 진실인가? 외면의 진실인가? 하는 그런 식의 답을 요구 하게 될지도 모른다. 아니면, 그런 답을 요구 당한 경험이 있을 수도... 애인 훔치기는 살아 가는 방식이 전혀 다른, 유명 인사와 도둑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인간적인 모습으로 펼쳐 보이고자한다. 박장대소가 터져 나오는 즐거움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느껴보는 두 가지 세상의 삶의 드라마. 그 진실 게임의 즐거움 안에서 관객과 함께 감동을 만들어 갈 것이다.



## 작품설명

2006년 극단사계의 “도덕적 도둑”은 재미난 구성과 웃음이 넘치는, 마치 상상 속의 또 다른 나라에 왔다 가는 듯 폭 빠져들게 하는 작품이다. 시의원의 집에서 펼쳐지는 좌충우돌 도둑의 이야기는 배꼽을 움켜잡고, 신나게 웃기도 하고, 부적절한 세상의 한편을 시원하게 파헤치기도 한다.

시 의원인 주인과 아내가 따로따로 집을 비운 사이 도둑이 침입해서 물건을 털려고 하는데, 바람을 피우던 시의원이 애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다. 커다란 과중시계 안으로 급하게 숨어 있던 도둑은 결국 들리게 되지만, 집 주인의 불륜을 알게되었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재미난 일들이 벌어진다. 집 주인의 아내가 돌아오고, 도둑의 아내 나타나고, 다른 도둑이 나타나고, 실 틈 없이 지나가는 재미난 이야기 전개가 관객의 막힌 가슴을 시원하게 해 줄 것이다.





# 작품 줄거리



집 주인인 시 의원과 그의 아내는 따로 바람을 피우며,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집을 비우게 된다.  
도둑은 부부가 집을 비운 사이 물건을 훔치러 들어가는데,  
집 주인인 시 의원이 애인과 함께 돌아온다.  
도둑은 커다란 과중시계 안에 숨어 있다가 그들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어,  
집 주인에게 들키게 되지만 집 주인도 어찌 하지 못한다.  
그때 별장에 가 있겠다던 집 주인의 아내 돌아오고  
서로 마주치게 되지만 집주인의 아내에게 집 주인의  
애인을 도둑의 아내라며 거짓말을 하게 되고,  
집 주인의 아내는 집에서 자고 가라고 권유한다.  
그런데 도둑의 아내가 도둑을 찾아 집으로 들어  
와서 갑자기 도둑의 아내는 둘이 되어 버린다.  
거짓말과 거짓말이 이어지고  
계속 꼬여만 가면서 난장판이 되는데...

